

보건복지 제476호 (2026-17)

ISSUE & FOCUS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10. 26. ISSN 2092-7117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¹⁾

박은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의약품 처방자뿐만 아니라 의약품 수요자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인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2025년 수행된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의약품 정보원의 사용이 높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의약품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음. 또한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 수면제, 진통제 등이 남용된다고 인식하였음.
-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의약품 구입·처방 단계에서의 중재,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과 재활 연계 등 다각적인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01. 서론

◆ 의약품은 만성질환의 치료·관리와 증상 완화에 필요한 보건의료자원이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 학업·업무 효율 향상, 정서적 불편 완화 등 비의학적 목적에서 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주목되면서 의약품 남용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중보건과 의약품 정책의 문제로 재인식할 필요성이 커짐(김남희 외, 2024).

1) 이 글은 박은자, 배정은, 전진아, 박실비아. (2025).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결과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재작성한 것임.

- 마취제, 식욕억제제 등의 의약품 남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최근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음.
 -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020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았음. 투약 이력 확인 제도 등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진통제와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은 감소 추세임(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 의약품 남용 관리 정책은 마약류 의약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의약품의 특성, 의약품 접근성, 국민의 인식, 정보 획득 경로 등이 복합적으로 의약품 남용에 작용함.

- 의약품 성분의 중독성이 일차적으로 의약품 남용에 영향을 미치나 잘못된 의약품 정보, 의약품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의약품 남용에 대해 ‘의료적으로 허용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과도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함(World Health Organization, 1969). 최근에는 의약품의 처방 지시와 라벨을 벗어나 사용하는 오용과 비의료적 사용인 남용을 포괄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으로 지칭하기도 함(Smith et al., 2013).

◆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의약품 처방자뿐만 아니라 의약품 수요자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의약품 남용의 실태나 제도적 관리에 대한 논의에 비해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음.

◆ 이 글은 2025년에 수행된 성인 대상 조사 자료(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인식 조사)를 사용하여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의약품 정보원을 분석하고, 의약품 남용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2025년 9월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인식 조사(온라인조사)’를 하였는데, 총 1011명(19~29세 191명, 30~39세 202명, 40~49세 229명, 50~64세 38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02. 의약품 정보원과 의약품 남용에 대한 인식

1) 의약품 정보원

◆ 대중매체,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으며 의사, 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제공하는 대면·비대면 정보원을 상당히 활용하였음.

- 평소 빈번하게 의약품 정보를 습득하는 정보원 두 가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 병원,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가 37.4%였고,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등) 대면 접촉이 33.9%, 텔레비전·라디오 뉴스 및 건강프로그램이 33.6%로 나타남. 이는 전통적인 의약품 정보원인 전문가와 대중매체가 의약품 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로 작용함을 보여 줌.
- 비전문가 경로를 통한 의약품 정보 획득도 적지 않았는데, 20.2%는 텔레비전·라디오·온라인 의약품 광고를 주요 의약품 정보원으로 응답하였음.
 - 가족, 친구, 동료,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이 25.3%였고, 일반인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를 통해 빈번히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도 18.8%였음.

◆ 중장년층과 비교하여 20·30대에서 SNS 등 온라인 의약품 정보원의 사용이 높았는데, 일반인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를 주요 의약품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비율 또한 19~29세 23.6%, 30~39세 25.2%로 적지 않았음.

- 19~29세 연령군의 주요 의약품 정보원은 전문가 제공 온라인(44.5%), 대면접촉 보건의료인(38.2%), 대면접촉 가족, 친구 등(24.6%), 일반인 제공 온라인(23.6%) 순이었으나, 50~64세 연령군의 주요 의약품 정보원은 대중매체(45.8%), 전문가 제공 온라인(31.4%), 대면접촉 보건의료인(30.3%), 대면접촉 가족, 친구 등(26.7%)의 순으로 연령에 따라 주요 의약품 정보원에 차이가 있었음.

〈표 1〉 주요 의약품 정보원

(단위: %)

구분		비율
대중매체, 서적 등	텔레비전·라디오 뉴스, 건강프로그램 등	33.6
	텔레비전·라디오·온라인 의약품 광고	20.2
	신문·잡지·서적(온라인 포함)	9.0
대면접촉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등)	33.9
	가족, 친구, 동료, 지인	25.3
비대면접촉(온라인)	정부·공공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20.7
	병원,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37.4
	일반인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18.8
	기타	1.0

주: 평소 빈번하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정보원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함.

출처: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 박은자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5.

〈표 2〉 연령군별 주요 의약품 정보원

(단위: %)

구분	19~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텔레비전·라디오 뉴스, 건강프로그램 등	16.8	21.3	35.4	45.8
텔레비전·라디오·온라인 의약품 광고	18.3	15.8	21.4	21.9
신문·잡지·서적(온라인 포함)	5.8	8.4	9.6	10.0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등)	38.2	36.1	31.9	30.3
가족, 친구, 동료, 지인	24.6	22.3	24.0	26.7
정부·공공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19.4	25.2	23.1	16.7
병원,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44.5	38.6	37.6	31.4
일반인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23.6	25.2	13.5	15.4
기타	1.6	1.0	0.9	0.8

주: 평소 빈번하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정보원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함.

출처: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 박은자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연구에서 수행한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2) 의약품 남용에 대한 태도

◆ 대부분의 응답자가 의약품 남용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었으며, 의약품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음.

- 응답자의 97.4%가 ‘의약품 남용’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었음. 50~64세는 0.8%만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데 비해 19~29세는 4.7%가 의약품 남용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여 연령군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의약품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의약품은 중독성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대체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음.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약 봉투나 포장에 명시된 용량·용법과 다르게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우세하였음.

〈표 3〉 의약품 남용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의약품을 복용한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22.6	72.6	4.4	0.4
일부 의약품은 중독성이 있다.	28.9	65.8	4.9	0.4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약 봉투·포장의 용량·용법과 다르게 의약품을 복용해도 된다(더 많이 또는 더 자주 복용).	3.5	12.7	34.5	49.2
의약품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24.5	70.0	4.6	0.9
우리 사회가 의약품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52.0	45.0	2.6	0.4

출처: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 박은자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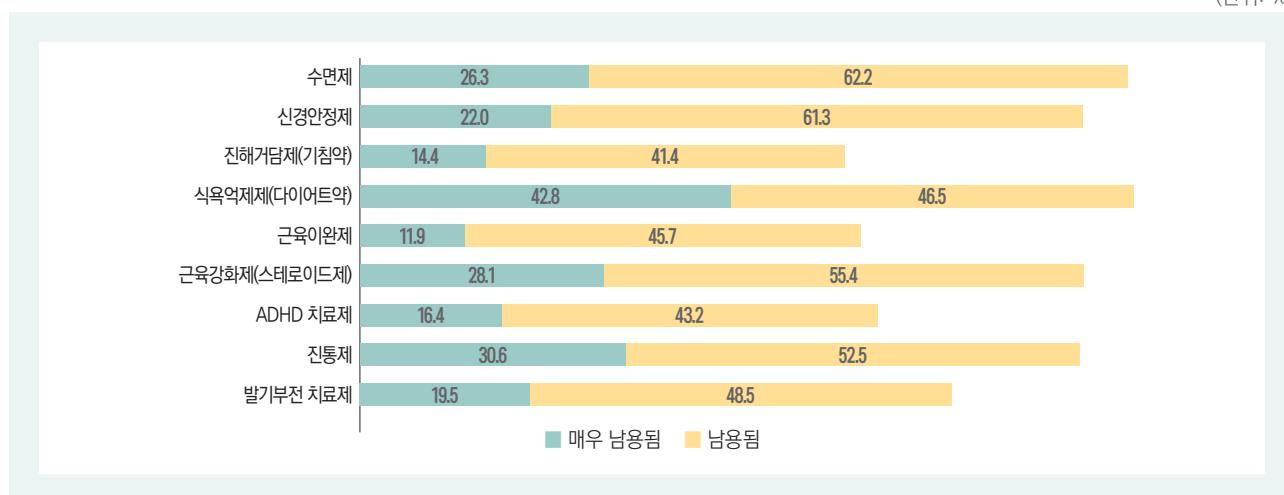
3) 의약품 종류별 인식

◆ 의약품 종류별로 해당 의약품이 우리 사회에서 남용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의 상당수가 수면제, 신경안정제, 식욕억제제, 근육강화제, 진통제 등이 남용된다고 인식하였음.

- 매우 남용되거나 남용된다고 대답한 비율은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가 89.3%로 가장 많았고, 수면제 88.5%, 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제) 83.5%, 신경안정제 83.3%, 진통제 83.1%, 발기부전 치료제 68.0%, ADHD 치료제 59.6%, 근육이완제 57.6%, 진해거담제(기침약) 55.8% 순이었음.
- 매우 남용된다는 응답 역시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가 42.8%로 가장 많았고 진통제(30.6%), 근육강화제 (28.1%), 수면제(26.3%), 신경안정제(22.0%), 발기부전 치료제(19.5%), ADHD 치료제(16.4%), 진해거담제(14.4%), 근육이완제(11.9%) 순이었음.

[그림 1] 의약품 종류별 남용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19~64세 조사 참여자에게 수면제 등 9개 의약품 종류를 제시하고, 우리 사회에서 남용되는지 인식을 조사하였음. 연령에 따라 사용하거나 정보를 접하는 의약품 종류가 다르고, 남용된다고 인식한 비율과 실제 처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함. 일반인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응답자가 인식한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에는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경구용 식욕억제제, GLP-1 계열 주사용 비만치료제, 지방흡수억제제 등이 구분 없이 포함될 수 있음.

출처: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 박은자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4의 표를 그래프로 저자가 재구성함.

03. 의약품 남용에 대한 정책 수요

◆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 정책의 1순위로는 교육과 홍보가 가장 많이 선택되어 국민들이 예방 중심 정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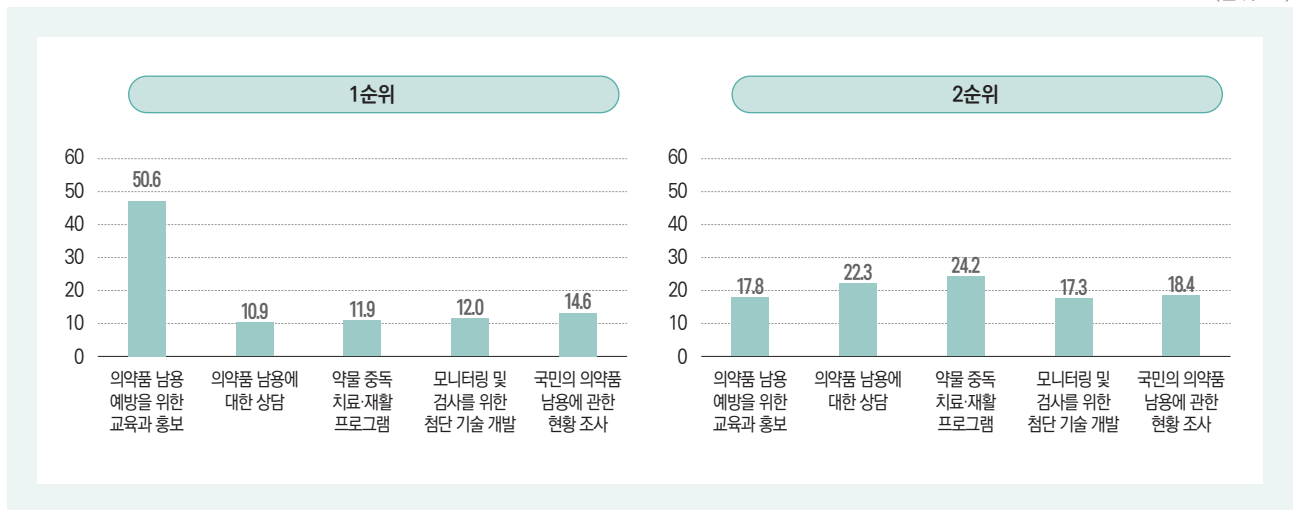
-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두 개까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는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50.6%로 가장 높았음. 이어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현황 조사'(14.6%),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12.0%),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11.9%),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10.9%) 순이었음.

◆ 2순위에서는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상담의 비중이 높아 초기 예방과 더불어 이미 남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고 회복을 돕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음을 시사함.

- 2순위에서는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24.2%로 가장 높았음.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22.3%),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현황 조사’(18.4%),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17.8%),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17.3%)이 뒤를 이었음.

[그림 2]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



출처: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 박은자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1.

◆ 1순위로 응답된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19~29세 연령군에서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33.5%)와 함께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21.5%)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음.

- 50~64세 연령군은 65.0%가 교육과 홍보를 우선 실시해야 하는 정책으로 응답한 데 비해 19~49세 연령군에서는 상담, 치료·재활 프로그램, 현황 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었음.

<표 4> 연령군별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우선순위(1순위)

(단위: %)

구분	19~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33.5	37.1	52.4	65.0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	12.0	16.3	10.9	7.5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	21.5	12.4	12.2	6.7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	13.1	18.3	11.4	8.5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현황 조사	19.9	15.8	13.1	12.3
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 박은자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연구에서 수행한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04. 정책적 시사점

◆ 의약품 남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의약품 사용 및 남용에 대한 인식, 의약품 정보원, 의약품 구입 및 처방 접근성 등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함.

- 국민들은 의약품 남용의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가 이에 대해 주위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였음. 또한 의약품 남용, 부작용 발생 가능성, 일부 의약품의 중독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의약품 남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함.

- 대국민 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교육과 홍보를 꼽은 만큼 의약품 남용의 범위, 의약품 남용의 위험과 부작용, 중독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건소와 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경로로 의약품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 특히 의약품 정보원의 신뢰성과 적절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조사에서 가족, 친구, 동료, 지인과 같은 비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과 의약품 광고를 통한 의약품 정보 획득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의약품 정보가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함께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젊은 층에서 온라인 의약품 정보원의 사용이 많았는데, 온라인은 정보 확산 범위가 넓고 속도도 빠른 데다 의약품 남용과 연관될 수 있는 정보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권경희 외, 2006; 이소영 외, 2023).

◆ 효과적인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약품 구입·처방 단계에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조회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도’와 같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반복 처방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의약품 처방·조제·판매 시 의사와 약사가 반복 투약 등 환자의 의약품 남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필요시 의약품 남용의 위험성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과 재활 연계, 연령별 맞춤 전략 등 다각적인 의약품 남용 관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1순위로 교육과 홍보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나, 2순위에서는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의약품 남용 상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일반 국민이 의약품 남용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후 지원과 회복 서비스 역시 중요한 정책 수요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19~29세에서는 21.5%가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12.0%가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을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 정책의 1순위로 응답함.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등 중재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권경희, 김형춘, 오세관. (2006).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대학교.
- 김남희, 이선형, 조제성, 박진실, 전진아. (2024).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Ⅰ): 마약류 범죄 실태조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은자, 배정은, 전진아, 박실비아. (2025).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6. 24.).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 발표** [보도자료].
- 이소영, 이지은, 김미리, 정은아, 조은. (2023). 국내 체중 감량 약물 사용 현황: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한 처방전 분석. *HIRA Research*, 3(2), 182-195.
- Smith, S. M., Dart, R. C., Katz, N. P., Paillard, F., Adams, E. H., Comer, S. D., Degroot, A., Edwards, R. R., Haddox, J. D., Jaffe, J. H., Jones, C. M., Kleber, H. D., Kopecky, E. A., Markman, J. D., Montoya, I. D., O'Brien, C., Roland, C. L., Stanton, M., Strain, E. C., ... Dworkin, R. H. (2013).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misuse, abuse, and related events in clinical trials: ACTTION systematic review and recommendations. *Pain*, 154(11), 2287-96.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69). *WHO 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 sixteenth report* (WHO Technical Report Series No. 407)